



한호섭_요셉 | 신부_서울대교구 성내동 성당

11월 위령 성월을 맞아, 교회는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느님의 자비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모든 것이 불확실한 반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왜 인간은 죽어야 하는가?’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은 인간이 항상 물어왔고 답을 찾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달 위령 성월에는, ‘죽음’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생명과 구원

성경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 나름대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약성경은 죽음을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시편 89, 48 참조)으로 인정하고, 최초의 인간이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지 않은 죄의 결과, 즉 벌이라고 말합니다(창세 3, 19 참조). 신약성경은 죽음을 죄의 결과와는 다른,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관문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죽음’이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주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생명’과 ‘구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하는 피하고 싶고 고통스러운 것으로만 생각하기보다 이를 올바르게 알아 잘 준비하고 삶의 소중함과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거 퀴더, 십자가의 길 14처

지거퀴더 신부가 그린 <십자가의 길> 그림 중 마지막, 14처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배경은 무덤의 내부인데 죽음의 어둠과 쓸쓸함을 나타내듯 검은색과 갈색을 이용해 전체적으로 어둡게 표현하였습니다. 중앙에 포에 쌓여 있는 예수님의 시신은 꼭 번데기 같습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 일종의 죽음과도 같은 번데기의 과정을 거치듯 우리도 부활하기 위해서(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넘어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통을 통해 얻은 고귀한 선물입니다. 가슴과 손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는 그분의 수난을 목상하게 합니다. 무덤 입구가 살짝 열려 있고 무덤 윗부분의 붉게 떠오르는 태양은 새로운 날,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두움을 뚫고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이십니다. 예수님이 누워 계신 부분은 희랍어의 Α(알파)와, 무덤 입구의 모양은 희랍어 Ω(오메가)와 비슷합니다. 시작(Α)이며 마침(Ω)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생명의 순간에도 함께하실 것이며 그분으로 시작된 모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지상 생활의 마침, 죄의 결과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가톨릭교회는 죽음을 지상 생활의 마침으로 이해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007항). 우리의 삶은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죽음은 생명의 정상적인 마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죽음은 우리 삶의 유한성을 알려 주며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순간임을 깨닫게 합니다.

교회는 죽음을 죄의 결과로도 설명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008항).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으나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지혜 2, 23-24 참조).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루카 13, 4).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음은 변화되었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009항).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겪으셨는데, 죽음에 직면한 두려움에도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명함으로써 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명으로 죽음은 축복으로 변화되었습니다(로마 5, 19-21 참조). 이로써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010항). 이제 죽음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것,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고 일치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교 신자는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이미 한 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 지상 순례의 끝

죽음은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희망하던 하느님께 대한 마지막 응답의 순간이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미사 전례서에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담은 기도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감이니 세상에서 깃들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위령 감사송1).

죽음은 인간 지상 순례의 끝이며, 지상 생활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실천하고 자신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하라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자비의 시간의 끝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013항). 따라서 교회는 ‘죽음’을 준비하라고 권하며, 우리는 기도 중에 천주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우리가 ‘죽을 때’ 우리를 위해 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믿음의 영역 밖에서는 어떤 답변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믿는 기본적인 내용은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생과 사를 주관하는 분이시고 언제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으로 머물러 계시며 인간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느님께 장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만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확신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도 결국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신앙을 보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느님의 업적을 믿기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